



이스라엘, 군현대화 개혁 개시

이스라엘군 고위사령관이 3월 말경 획기적 군사조직 개편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 군현대화 혁명은 저강도 분쟁을 비롯한 기존의 재래식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군대의 육성을 통하여 자국의 자원부족을 무마시킨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美 국방성의 군사개혁(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개념에 대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자체적 수용을 구체화시키는 이번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강화된 조기경보, 군사력 투사(投射), 연

합작전들과 신속한 기동력을 위한 육군비행대의 설립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RMA는 신속한 기술적 진보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군대조직 변화의 응답을 가정한 개념이며, 군사적 효율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달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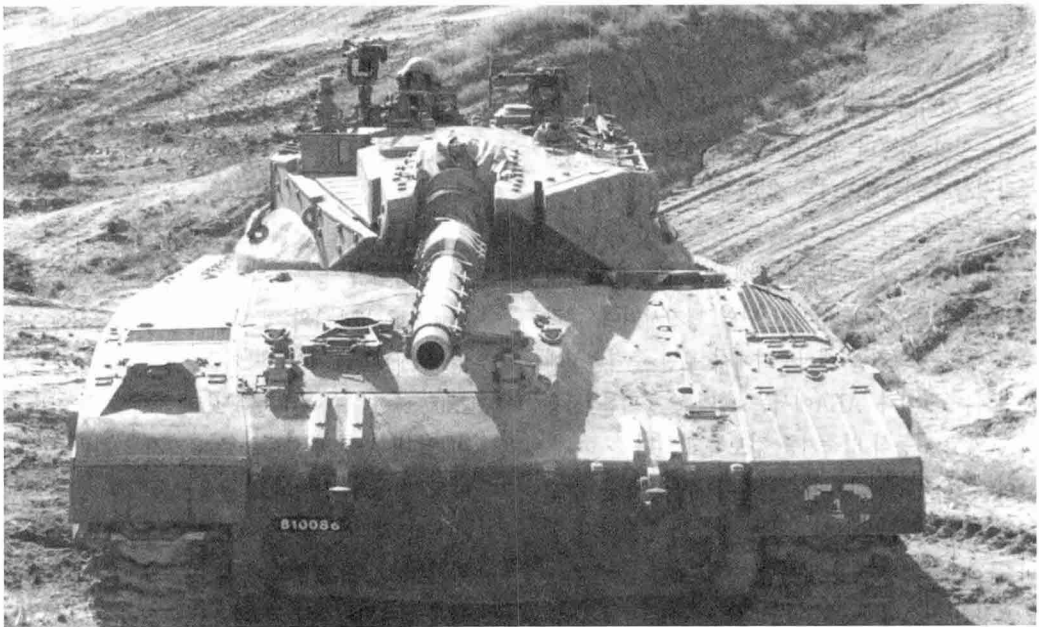
샤울 모파즈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IDF 2000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RMA는 국경근처에 포진한 오늘날의 위협들을 겨냥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위협들은 시리아와 이란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예상되는 위협, 이란의 후원 아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전투중인 히

즈볼라 폭도들이라고 밝혔다.

美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뒷받침되는 RMA 개념과 흡사하게 이스라엘의 계획은 기술과 전술을 흔히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이라 불리우며 오늘날 새롭게 진화해 가는 위험 요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작전적 우월성의 확보를 꾀하고 있다.

비대칭적 위협이라는 개념은 보다 강한 기존의 무장군대를 격파시키기 위한 화학무기나 컴퓨터교전의 적용가능성을 의미하며, 모파즈는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이 계획을 세부 검토하여 왔으며, 내년 초까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

이스라엘의 MERKAVA MARK II MBT





하였다.

모파즈는 계획의 세부사항에 관한 언급은 피하였으나, 이스라엘 공군의 투사(投射), 대량파괴 무기에 맞서기 위한 강화된 억제력, 그리고 1,500명에 이르는 강력한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의 향상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군이 자체적 자금비축과 더불어 자체적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자금비축은 유지비가 너무 비쌌던 F-4 전투기, M-48 전차, 그 밖에 쓸모없게 된 트럭들과 다른 장비들을 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공군 현대화 노력에 관하여 모쉬 아렌즈 국방부장은 정부가 다음 두 달 안에 신예 전투기 구매에 관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두 주요 전투기 제조업체 - 텍사스에 위치한 F-16의 제조사 록히드마틴사와 시애틀에 거점을 둔 F-15의 보잉사 - 의 거의 2년여에 걸친 경쟁에 관하여 아렌즈 장관은 "일단 두 회사로부터 최종 가격제의를 받으면 우리 우리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월 12일 윌리엄 코헨 美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인 아렌즈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F-16이나 F-15중 한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종전까지 기대되어 왔던 바와 같이 양 기종을 동시에 구입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일단 25억달러로 계획된 이스라엘의 구매계획은 워싱턴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기(近期)구매 기금 조달을 위한 앞으로의 군사 원조를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약 50억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근기구매 조건 하에 이스라엘에 원조금을 지원한다면, 이스라엘은 원래 계획되었던 60대의 F-16기 대신 110대까지 수입할 수 있으며, 30대의 쌍발엔진 전투기 대신 40대의 F-15기를 구입할 수 있다.

모파즈 참모총장은 새 군사장비구입의 구축이 앞으로는 이달 말 자신이 참모들 사이에서 새로이 설립하려 하는 한 작전담당부서를 통하여 조정, 관할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새로운 부서는 3군 모두를 수반할 것이며 모든 작전들과 지속적인 보안에 관한 양상을 다룰 것이라고 하였다.

모파즈는 "이 새 부서의 창립은 아군의 전반적인 작전관리와 작전지식 통합의 모든 양상을 비롯한 저장도 전투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국방성과 이곳 산업계 관리들은 본 계획의 또 하나

독특한 요소가 이스라엘의 약 3,500대에 달하는 전차부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자적 진보임을 밝혔다. 이것은 지상군을 마치 공군과 해군이 작전을 펼치듯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곳 관리들은 이 야심적인 전자성능 개량기술을 전자 전자공학이란 뜻을 가진 '탱키오닉스(Tankionics)'라고 불러 왔으며, 이것은 관제탑을 위해 고안된 항공 전자공학기술과 상응하는 지상교전술이다.

이스라엘의 엘옵사 제이콥 엘론 부사장은 "시간은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더 이상 포나 포탑을 조준경에 의존하여 식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항공 전자공학기술을 관제탑과 함교의 효율성을 변형한 보다 향상된 전자공학의 형식으로 전차에 도입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진보된 감지장치, 다기능 계기판, 고출력 레이저와 통신망을 갖춘 이스라엘의 독자개발 Merkava 전차는 승무원들로 하여금 각 전차의 내부에서 마치 전투기의 조종석과 같이 그들이 직접 전투를 계획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사령본부와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엘론은 "이것은 전차 지휘관과 지상의 모든 전투차량들에게 환경과 전투지역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보다 높은 가능성을 부여한다"라고 말하였다.

〈Defense News〉 '99. 3. 22, p8

Boeing, 폴란드에 양호한 조건 제시

폴란드의 잠정 전투기 선정 직전, Boeing사는 전투기 경쟁에서 분담금을 크게 높이게 될 절충교역 묶음을 폴란드 정부에 제시하였다.

정부와 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묶음은 폴란드의 군사적인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바르샤바가 중부 유럽 지역안보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1월 25~27일 워싱턴을 방문한 Janus Onyszkiewicz 폴란드 국방 장관에게 제시된 Boeing사의 안에는 전투기, 헬기 성능 개량과 공중 발사 및 대함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 우주항공 부문에서 폴란드와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짐 실루에터 Boeing사 대변인이 말하였다.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4월 워싱턴에서 이루어질 정상회담에서 NATO에 가입하게 된다. 폴란드는 그 이전에 단기 구매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일부 업체 인사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 Onyszkiewicz 장관은 워싱

턴 방문중 가진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결정이 “수주 내로”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이 무기들은 21세기 초 폴란드가 신형 전투기를 대량 구매할 때까지 폴란드 방공 소요와 국제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폴란드 신형 전투기에 대한 장기적인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졌다. 시애틀 소재 Boeing사 외에 경쟁업체로는 판보로우 소재 British Aerospace plc가 스웨덴 린코핑 소재 Saab AB와 팀을 이루어 JAS 39 Gripen과 Hawk 훈련기를 제시하였으며 프랑스 보크레송 소재 Dassault Aviation이 Mirage 2000, 메릴랜드 베데스다 소재 Lockheed Martin이 F-16을 제시하였다.

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Boeing의 전투기 제안에는 최초 F/A-18 A/B 리스 계약에 이어 F/A-18 C/D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폴란드 공군은 MiG-21, 23, 29를 포함하여 전투기 202대를 운용하고 있다. MiG-29 기종은 2000년이 지나 배치될 것이지만 고가의 통신 및 항공전자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NATO군과 호환성이 없게 되어 있다.

폴란드 인사들은 중공 항공기부터 시작하여 좀더 신형인 160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9월 폴란드

공군의 최고위 인사는 단기적인 선택안으로 가장 유력한 기종을 F-16 Fighting Falcon으로 꼽았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와 서방 업체 소식통들은 Boeing사의 새로운 제안은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 군 대변인 아터 빌스키 대위는 제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그가 논의할 수 없다며 “산업 절충교역과 구매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인 선정을 하는 요소는 순수하게 군사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분적으로 구매의 정치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은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침체되는 항공 및 방위산업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oeing은 자사의 입찰이 성공을 거두면 폴란드의 민영화 과정에 깊게 개입하려 한다고 한 업체 인사가 말하였다. 일례로 폴란드 정부는 PZL-Mielec를 민영화 하고자 한다.

실제 British Aerospace는 이미 PZL-Mielec 지분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동사 간부들은 이 지역에서 Hawk를 제작하는데 폴란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Boeing의 새로운 제안은 항공



Stinger(左)와 Starstreak(右)가 장착된 어벤저 시스템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지역 중심 축이 되고자 하는 폴란드 정부의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oeing의 제안에는 테블린 공군 기지에서 사용할 체코 L-159 첨단 제트 훈련기 공동생산을 포함하며, 폴란드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군의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계획도 수반되어 있다.

Boeing은 이미 L-159를 제작하는 Aero Vodochody, Odolena Voda에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 자국의 I-22 고등 훈련기 사업은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공군은 이 임무를 충족시킬 대체 기종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Boeing의 묶음은 장기간 논란이 많은 Huzar 전투지원 헬기 사업에 대한 자극도 주고 있으며

동사는 Hellfire 2 대장갑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면허 생산하도록 제의하고 있다.

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Brimstone 밀리미터파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이른바 후속 구매의 일부로 제안되고 있다.

Boeing은 나아가 Huzar에 사용 계획인 항공전자 장비를 Mi-24 Hind 전투지원 헬기에 장착코자 한다. 이 제안에는 헝가리와 체코의 Hind를 위해서도 같은 기술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Boeing은 공군 장비와 함께 해군을 위해서는 Harpoon 대함 미사일, 육군을 위해서는 Avenger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Defense News〉 '99. 2. 22, p8, p48

美 해군, 스텔스 군함 홍보

美 해군 인사들은 적국 해안선 근처 수역에서 운용하기 위한 소형 스텔스 군함 개발을 모색코자 한다.

Street Fighter로 불리는 이 개념은 로데 아일랜드 뉴포트 소재 해군 군사대학 교장 아트 시브로우스키 제독의 창작품으로, 해군이 향후 수년간 판단코자 하는 미래 전력 구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일례라고 해군 인사들은 말하였다.

현재 예상으로 Street Fighter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2,000톤급 군함이 될 것이다. 이는 중무장을 갖추고 적 해안에 근접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군 작전 차장 도널드 필링 제독이 2월 24일 美 조선평의회 주최 해군력 발표회에서 말하였다.

시브로우스키 제독은 이 형태의 함정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지원하면서 이 개념과 더 많은 함정의 확보 방안을 연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필링 제독은 설명하였다.

이 개념을 시험하기 위하여 해군은 애초 Lockheed Martin이 개발한 Sea Shadow 스텔스 시험함을 예비 함대에서 차출하여 조만간 실시될 시험에 투입할 것이라



고 필링 제독이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실제 Sea Shadow는 3월말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실시 예정인 Echo 해군 함대전투시험에 참가하게 된다.

“이 함정은 포착 가능성이 낮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 왜 실험을 지속하지 않겠는가?”라고 필링 제독은 말하였다.

필링 제독은 Street Fighter가 해군 DD-21 Land Attack 구축함 사업의 보완책으로 보이며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빨라도 2020년대 중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필링 제독은 말하면서, 내일 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해군은 아직 개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며 美 국방부의 승인을 위해 막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업체로 보내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군 소식통은 Street

Fighter 함정 건조는 2010년이 넘어야 시작될 것이며, 그때 해군은 DD-21 함대 대부분을 이미 건조하였을 것이며 후속 CG-21 순양함 건조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Street Fighter가 DD-21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군은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해군 군사대학 사람들에 대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업체 소식통이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들은 오늘날같이 자금을 긴축하는 여건에서 대체함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는 현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해군의 일부 인사들이 Street Fighter 개념이 DD-21에 대한 도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링 제독이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나는 그것이 DD-

21의 대체안이지 추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방산업체 소식통이 말하였다.

해군의 일부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해군이 DD-21 Land Attack 구축함을 설계코자 하는 동시에 Street Fighter 개념을 추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Street Fighter가 최악으로는 DD-21의 직접적인 위협이고 최선이라도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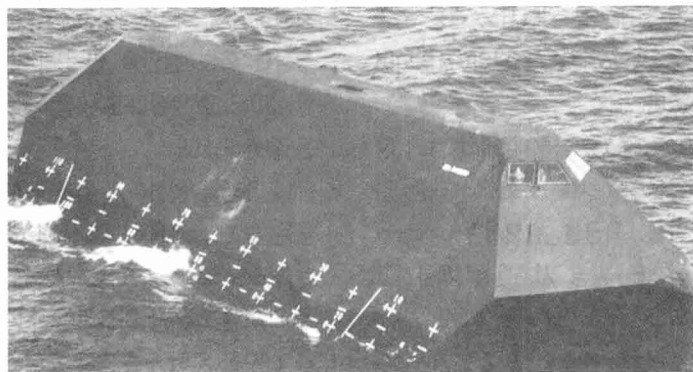
해군 지도층에서 2000년도 해군 예산중 DD-21을 위해 2억7천5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Street Fighter 개념은 시브로우스키 제독이 최근 해군 고위인사들에게 실시한 76장의 비밀 내용 슬라이드 브리핑중 일부이다.

“이 크기의 선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상당히 막강할 수 있고, 전투 체계 크기의 축소로 인하여 더 작은 함정에도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시에틀 소재 해양 컨설팅 업체인 AMI International의 마이 스티트 사장이 말하였다.

2,000톤 Street Fighter는 태국이 운용중인 1,000톤 라타나코신급이나 독일 조선소 blohm+Voss AG가 설계한 A-100 Meko에 갖추어져 있는 종류의 능력을 반영하고

미국이 개발한 Sea Shadow 스텔스 시범함





있다.

더 작은 함정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해군이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군이 스스로 설정한 하한선 300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다른 해군 소식통이 말하였다. 그들은 현재 예상하는 116척의 해상 전투함은 총 수량 증가없이 미래에 예상되는 임무를 수행토록 압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일부 인사들은 해군이 116척의 해상 전투 함대를 조달할 수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외교적 수완을 쓸려면 숫자가 필요하며 DD-21과 함께 해상 전투함 116척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해군 임무를 변경하는 대신에 건조할 함정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한 방산 소식통이 말하였다.

다른 해군 인사들은 함정 가격이 더 이상 크기로 결정되지 않으며 현재의 건조 기술을 고려하면 대형 함정 건조가 더 저렴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형 선박은 소형 선박처럼 주문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사실상 더 저렴하며, 실질적인 비용은 인건비이다”라고 해군 소식통은 말하였다.

덧붙여 필링 제독은 Street

Fighter 개념이 해안 경비대에서 사용되거나 국제 해군에 매력적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조선소의 잠재적인 사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안 경비대는 이미 Deepwater 개념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함정 결정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구형 경비정을 교체할 것이다. 37개 계약 팀이 Deepwater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조선 소식통에 따르면 Deepwater와 Street Fighter는 동일한 선체를 기본으로 할 수 있으며 양쪽에 모두 득이 될 것이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해군 컨설팅 업체인 Techmatic In.의 보안전략 분석센터 스코트 트루버 국장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보이며 해군과 해안 경비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Defense News〉 '99. 3. 8, p1, p34

터어키, 헬기 사업 경쟁업체 유지

40억달러 상당의 공격용 헬기 사업과 관련하여 터어키가 5개 경쟁업체와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가지기로 결정한 것은 터어키에게는 더 좋은 협상 기회를 부여할 것이나 계약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2개 업체, 이탈리아 Agusta SpA, 프랑스 Eurocopter S.A.를 경쟁에서 탈락시켰다는 터어키 국방 당국의 초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터어키 방위산업 실행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최초 5개 참가업체를 모두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Eurocopter 소식통은 이 반복 결정에 만족을 표하였다.

방위산업 실행위원회는 무기구매를 위한 터어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위원중에는 총리,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5개 업체가 최종 선발되었으며, 이는 주 계약업체인 Tusas Aerospace Industries Inc. (TAI)가 모든 경쟁업체들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터어키 주요 방산구매기관인 방산사무국의 버카크 국장이 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버카크 국장은 방위산업 실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TAI와 공동으로 무장 헬기 145대를 제작하는 이 사업의 경쟁업체와 기종은 Eurocopter의 UH-1A5 Tiger, Agusta의 A-129 International, 러시아의 Kamov Helicopter Co.와 이스라엘 Israel Aircraft Industries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Ka-50/2 Black Shark, Bell



Helicopter Textron Inc.의 AH-1W Super Cobra 또는 King Cobra의 성능 개량형, Boeing Co.의 AH-64D Apache Longbow 등이다.

“향후 수개월내 TAI 실무진이 외국 업체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가져 각 업체들이 최종안을 준비토록 할 것이다. 금년말 이전 방위산업 실행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결정지를 것이다”라고 버카크 국장은 밝혔다.

2월 1일까지만 해도 버카크 국장은 위원회에서 4월초 선정된 업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였다.

“최종 순간에 협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지연을 시키더라도 5개 업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터어키 전략연구소 국방분석가인 베크딜씨가 말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12월 Agusta와 Eurocopter를 탈락시켰다는 터어키의 비공식적인 음

이탈리아의 A-129 Mangusta



직임도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쿠르드 분리주의자 및 인권에 대한 터어키 정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독일과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크딜씨는 유럽 업체를 입찰 과정에 존속시키는 이유중 하나는 미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터어키 관련인사들은 만일 미국 헬기가 선정된다면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터어키 당국은 첨단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여 왔다.

“그와 같은 공격 헬기들은 복잡한 전투 장비이며 미국은 기술 이전으로 이러한 비밀을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생산 및 기술 획득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스 코드를 받을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러시아나 이스라엘제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터어키의 한 정부인사가 말하였다.

경쟁입찰 계획하에서 TAI는 각 업체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별도로 5개의 최종안을 준비토록 도울 것이다. 제안 내용에는 터어키 업체 참여분, 해외 하청업체 및 최종 가격 등 생산에 따른 세부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터어키는 공격 헬기 사업에서 총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국내 업체가 점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베크딜씨가 말하였다.

업체 인사들에 따르면, TAI는 복합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 통합뿐 아니라 동체 및 기본 부품 제작에 관여할 예정이다.

헬기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20여개의 다른 터어키 업체중 Askeri Elektronik Sanayii는 항법장치, 전자광학 및 통신 체계; Roketsan은 무장 체계 일부; Turkish Engine Industries는 엔진 일부, Mikrodalga Elektronik Sistemleri는 전자전 체계; Havelsan은 소프트웨어; Netas는 피아식별 체계를 생산할 예정이며, 최초 비행은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터어키 방산소식통은 육군이 기본적인 능력을 신속하게 갖추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가 퍼레이드

기 위해 처음 예정된 50대의 생산분중 10~15대의 헬기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Defense News》'99. 3. 8, p28

중국 방위예산 다시 증가

중국의 1999년 공식 방위예산이 11년째 연속으로 2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이며, 1,046억5천 만위안(미화 126억달러)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01%가 증가한 것이다.

이 예산안은 지난 3월 6일 열린 제9회 전체 인민 위원회의 2차 본회의에서 Xiang Huaicheng 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식 발표된 것이며, 중국의 방위예산 지출은 '97년에 12.7% 오름세를 보인 8백5억7천만위안, '98년에는 12.9%가 다시 상승한 9백9억9천만위안이었다.

그러나 일반 분석가들은 조달, 군사 연구발전, 5백만명 이상의 퇴직원 연금 등 몇몇 중대한 세목들 자금의 근원이 모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실제 방위 지출이 2~3배 가량 더 높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금년의 방위예산은 순수 상업적 사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측면에서 크게 기대되기도 하였다.

한 분석가는 "중국은 아직 PLA의 변화를 위한 총 비용을 산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그 보상은 자산이 아닌 이윤의 손실을 반영할 것이며, 몇 년에 걸쳐 분산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의 방위예산 증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만드는 2가지 핵심적 요인들로는, 첫째, 1994년

에 절정이었던 20%에 비해 현재 3%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올해의 실제적 증가는 1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98년에 보인 12.9%의 증가로부터 상승한 2.1% 상승점은 PLA로 하여금 22억위안의 부과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사업적 수익의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롯되는 보상의 상당 부분은 군인 급여의 인상과 PLA 인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장교급들에게 지급된 15~25% 급여 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여진 바 있다.

단기적으로 보아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할 50만 군대의 계속적인 동원 해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재정 비축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본 계획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14개의 PLA 사단들이 인민 무장 경찰(People's Armed Police: PAP) 의회군으로 편입되었고, 제2단계에서는 3개의 집단군과 7~8개의 부대들이 해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내년에 완결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세번째 단계에서는 예비대, 교육대, 그리고 본부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JDW》'99. 3. 17 p15

(방진회 해외사업팀 제공)